민주정부계승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지은희·장하진·정현백·이정옥·정영애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 5 인,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 전폭 환영"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민주정부계승위원회 위원 정영애 등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여성가족부 정책을 책임졌던 전직 장관5 인은 지난5 월30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동 입장 발표자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

지은희, 장하진, 정현백, 이정옥, 정영애

1. 성평등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엄 조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공약은,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며, 민주정부가 실천해온 성평등 인권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이 공약이 민주정부의 정책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지난25 년간, 약자의 권리를 지켜온 민주정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온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를 인권국가로 이끌어온 제도적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 시기마다 성평등 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축소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성평등은 정치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엄과 지속가능성의 기준입니다.

3. 성평등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 저출생, 청년갈등 해결의 핵심 열쇠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돌봄 격차, 젠더폭력 등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청년세대의 불안과 갈등은 사회적 분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인센티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평등 기반 위에서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나누며,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바로 이 역할을 총괄해야 합니다.

4.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정치적 전환점

오늘날의 성별, 세대 간 갈등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가족부' 공약은 그 갈등을 넘어 '공존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 전환점입니다.

"민주정부계승위원회는 본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제4기 민주정부가 성평등을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갈등을 넘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문의처: 민주정부계승위원회 집행위원장 서근수 kotic0448@gmail.com